'문학'의 하강곡선 뚜렷했던 한해

출협 집계 '95 출판통계에서 드러나… 발행 종수 및 부수도 감소

한해의 출판 동향을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은 역시 출판관련 통계들이다. 각종 책관련 통계들은 물량면에 있어서의 한해 출판기류를 정확하게 짚어내기 때문이다.

최근 집계를 마무리하고 발표된 출판관련 통계수치들을 살펴보면 95년 한해 출판업계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매년 증가추세에 있던 전체 출판종수가 94년의 2만9564종에서 95년에는 2만7407종으로 7.2%가 줄었으며 발간부수도 94년의 1억5232만6103부에 비해 5.3%가 감소한 1억4418만3607부로 나타나 지난해의 출판불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1995년 출판 통계표

(단위 : 종, 부, 원, %) (▲ : 감소표시)

	신간발행종수			신간발행부수			평균 발행부수		평균정가		평균면수	
	1994	1995	증감률	1994	1995	증감률	1994	1995	1994	1995	1994	1995
총류	283	350	23.6	551,760	2,037,320	269.2	1,949	5,820	20,183	10,095	434	277
철학	727	717	▲1.3	3,046,230	3,189,310	4.6	4,190	4,448	6,665	7,450	282	259
종교	1,941	1,834	▲5.5	5,468,419	5,205,848	▲4.8	2,817	2,838	5,701	5,482	270	269
사회과학	3,539	3,502	▲1.0	5,735,373	5,544,344	▲3.3	1,620	1,583	11,638	14,050	418	440
순수과학	463	521	12.5	1,231,356	976,390	▲20.7	2,659	1,874	12,112	14,387	340	314
기술과학	3,887	3,155	▲18.8	5,072,864	4,473,317	▲11.8	1,305	1,417	12,798	14,073	385	389
예술	1,314	1,107	▲15.7	3,751,570	2,433,290	▲35.1	2,855	2,198	11,641	12,105	204	196
어학	1,321	1,624	22.9	5,217,826	5,818,339	11.5	3,949	3,582	10,983	11,192	310	241
문학	6,053	4,771	▲21.1	14,665,134	12,724,092	▲13.2	2,422	2,666	5,087	5,816	289	288
역사	966	972	0.6	2,002,849	1,808,499	▲9.7	2,073	1,860	9,251	9,488	334	349
학술참고	4,710	4,691	▲0.4	87,936,300	75,665,604	▲13.9	18,670	16,129	4,760	8,057	146	149
아동	4,360	4,163	▲4.57	17,646,422	24,307,264	37.7	4,047	5,838	7,307	8,210	109	93
계	29,564	27,407	▲7.2	152,326,103	144,183,607	▲5.3	5,152	5,260	8,185	9,507	267	260

어학에 높은 관심

95년 한해 서점가에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던 밀리언셀러 소멸현상과 문학류의 퇴조현상도 통계수치에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95년 종합베스트셀러 상위 50위권의 판매부수가 92, 93, 94년 3년간의 평균 판매부수에 비해 30%가 줄어들어 밀리언셀러 소멸현상을 숫자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문학류의 전체 출간종수는 94년 6053종에서 4771종으로 무려 21.1%의 감소추세를 보여 문학물의 하강곡선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출간종수가 크게 늘어난 분야는 총류(23.6%), 어학(22.9%), 순수과학 (12.5%) 등으로 세계화 분위기에 따른 어학에 대한 높은 관심과 90년대 들어 활발해진 자연과학분야의 출판경향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만화 분야는 1331만4540부로 지난해보다 무려 22.9%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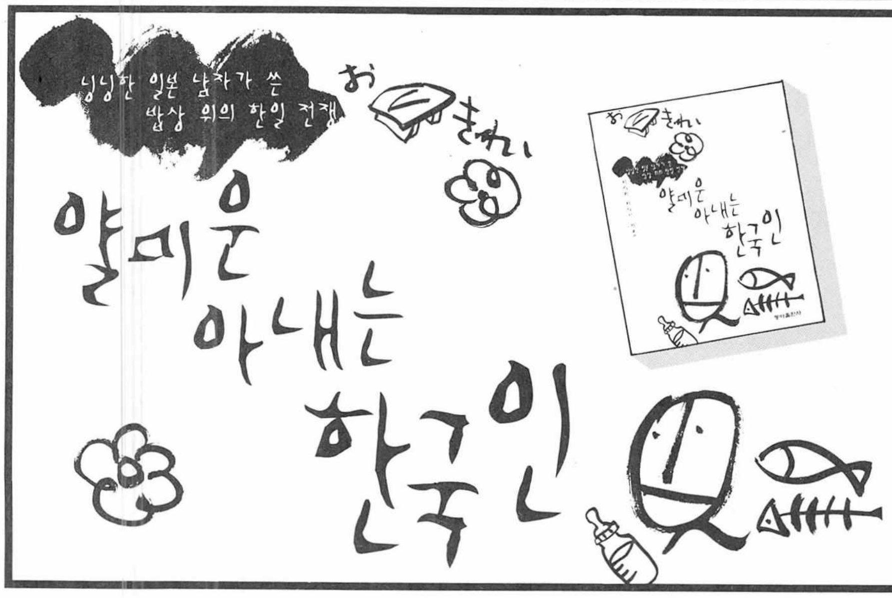
한 종당 평균 발행부수는 5260부로 지난해의 5152부에 비해 소폭으로 늘어나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소량다품종체제로의 전환 움직임이 아직은 미미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술과학, 사회과학, 역사 분야 등은 종당 평균 발행부수가 2000부 미만인 것으로 집계돼 해당분야의 고정 독자층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책값 상승률도 높아

책의 평균정가는 평균 9507원으로 지난해 8185원에 비해 16.1%가 올라 95년 한해 평균 물가상승률을 큰폭으로 앞질렀다. 분야별로는 순수과학이 1만4387원으로 가장 비쌌고, 문학류가 5816원으로 가장 낮은 정가로 출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펄프가격의 인상이 책값 상승을 부채질한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도서의 평균면수는 260면으로 지난해 267쪽에 비해 소폭으로 줄어 문학류를 비롯한 책들의 면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95년 9월말 현재 전국의 등록 출판사 수는 1만1279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91개(15.2)가 늘어나 불황에도 불구하고 출판업이 여전히 저자본으로 가능한 손쉬운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서점수는 94년말 5683곳에서 95년말에는 5549곳으로 집계돼(서점조합연합회 자료) 95년 한해 동안 134개의 서점이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연 기자



동아출판사

TEL:861-4818/853-5608

현대판 한·일 전쟁에서는 한국이 이긴다?

한국 여자와 결혼한 일본 남자 히라이 히사시 씨.
TV특파원으로 서울에 머무는 동안 사귀게 된, 톡톡 튀는 한국 여자와,
한 쌍을 이루기까지 치러 낸 수많은 사연들을 엮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달라야만 하는 걸까요? 아내는 성격 칼칼하고
때로는 경우도 없이 따지기 좋아하는 한국사람, 남편은 천성이 확실한 게 없는
모호한 일본 사람인 탓입니다. 연어 한 토막, 갈치 한 토막이 따로 구워 올려지는
이들의 밥상, 생선 취향에도 민족성이 반영되는 것일까요?
상식이 다른 두나라, 선명하게 대립되는 두개의 문화를 끌어 안고 벌이는
해프닝과 그 대립을 하나의 '재미'로 받아들이기까지 3년 여의
시간을 실감나게 담은 한솥밥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얻은 깨달음으로 "이제는 서로 다른 것이 즐겁다"는 두 사람.
민족이니 남녀니 하는 문제보다 더 큰 세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얄미운 한국인!'을 주장하고 나선 애처가 일본 남편이
농도 짙게 한국 여자를 꼬집습니다.
현대판 한일 전쟁에서는 한국이 이길까요?
히라이 히사시 지음 / 정가 : 6,000원